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주도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는 강정필 씨는 10년째 제주에 소재하는 소년원인 한길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 관광봉사를 하고 있다. 한번 관광을 다녀오면 자비로 150~200만 원의 경비를 써야 하는 데도 오히려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강정필 씨. 소년원의 아이들이 그에게는 모두 ‘마음 속의 아들들’이다. 그는 소년원의 아이들을 계도하기보다는 아버지처럼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놀아준다. 실수를 저지른 아이들을 낙인찍기보다는 너그럽게 만회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인생을 배운다.

내 마음속 아들들

“어찌다가 특수 강도가 되었나?”

“녹음기를 훔쳐서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와 부딪쳤어요.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아무거나 집어 들었어요. 정말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녹음기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녹음기를 훔쳤다가 특수강도죄를 적용받아 소년원에 다녀온 한 소년과의 만남.

그 만남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강정필 씨의 인생에 작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소년원 아이들의 인생 가이드 강정필 씨

2002년 강정필 씨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한 소년이 일 좀 시켜 달라고 찾아왔다. 그 소년의 기록에는 ‘특수강도’라는 죄목이 쓰여 있었다.

그러나 강정필 씨는 편견을 벗고 그 소년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았는데 의외로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 삶을 찾으려던 소년과의 만남은 강정필 씨로 하여금 소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소년원을 찾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찾게 된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니까? 저는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연학습 차원에서 가끔씩 관광을 시켜줘도 되겠습니까?”

강정필 씨는 소년지도위원이 되어 아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했다. 한창 뛰어다닐 나이에 갇혀 있는 아이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직업이 관광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외출. 30~40여명의 아이들과 인솔 교사를 태운 강정필 씨



집 마당에 심은 여름귤(하귤)은 겨울철 서리를 맞고 크다.
아이들이 인생의 겨울을 잘 이기고 잘 자라길 바라는 그의 마음 같은 과일.

의 버스는 제주도를 비롯해 우도와 마라도 등 아름다운 관광지를 달렸다. 버스가 설 때마다 아이들은 낚시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며 오랜만에 바깥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 강정필 씨도 행복하다. 1년에 2번 있는 그 화려한 외출을 강정필 씨도 아이들도 설레며 기다린다. 강정필 씨에게는 그 녀석들이 마음 속의 아들이고, 아이들에게는 강정필 씨가 또 하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힐링 캠프

강정필 씨는 아이들과 여행을 가는 날만 소년원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달에 최소한 1번은 소년원을 찾는다. 그런 날이면 그의 손에는 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과일, 치킨 등이 잔뜩 들려 있다.

바깥세상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속에서 먹고 즐기는 음식들을 소년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이다. 햄버거를 같이 먹고 치킨 다리를 같이 뜯으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어느새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준 아이들은 소년원을 나가서도 연락을 해오고, 친부모와 함께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효자 같은 아이도 있었다. 그 모든 게 강정필 씨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정필 씨는 소년들에게서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런 말보다 그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소년들의 밝은 미소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곳 아이들 상당수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한번은 집에 찾아갔더니 밥통에 밥이 다 말라서 며칠 동안 라면만 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없어서 나쁜 길로 빠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는 끝까지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 한다. 때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슴을 아프게 한 아이들도 있다. 친구의 가계에 취업을 시켜 주었더니 금고를 털어 달아난 아이도 있었고, 여행 도중 이탈하여 모두를 어렵게 만든 아이도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되묻는다. 책임을 아이들



지난 10여 년간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강정필 씨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강정필 씨는 그런 아이들의 집이 되어주려는 마음으로 이 집을 지었다.

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언제나 마음은 어른들과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기울고야 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 최근에 집 한 채를 지었다. 아이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만든 것이다.

“아이들 불러서 먹이고 재우려고 지었어요. 아이들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와서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었으면 해요.”

강정필 씨는 지금 전세버스운영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회장을 맡아 관광버스 기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400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난 이 모임은 소년원 봉사를 비롯해 장애인인권포럼과 아가의 집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정필 씨가 뿌린 사랑의 흙씨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 그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

Interview

강정필 / 제주도 관광버스 기사

“계도보다 먼저 사랑을 주고 싶었다”

Q. 계도보다는 소년원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를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계도야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어요. 늘 감시받으며 생활할 텐데, 간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놀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 애들은 계도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한 애들이에요. 계도는 그 다음이지요.

Q. 돌봐준 소년원 아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A. 경수(가명)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년원 출신인데 대학에 가게 되었죠. 2년제 한라 관광대를 가게 되었는데 소년원 청소년에게 장학금이 나올 때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다녀 올 수 있게 해주었고, 봉사 다녀와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도 저처럼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종종 연락하고 지내죠. 가끔 저와 함께 강연도 다녀오고 했어요. 이렇게 잘 자라주면 그게 큰 보람이에요.

Q. 소년원 봉사를 하시느라 시간과 돈을 많이 쓰시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신지요?

A. 집사람이 아무 잔소리도 안하고 잘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눈치는 보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고 오면 기분도 좋고 엔돌핀이 막 도니까 오히려 보약 값이 끼는 거라고 말하곤 하죠.

Q. 소년원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시는데,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A.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고 또 어른들의 문제이지요. 부모 책임이 크지만 주변의 어른들이라도 챙겼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수박서리도 하고 남의 소 풀에 볼도 내고 그랬지만 그것을 범죄라고 낙인찍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한번쯤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 주면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